한중일 전통가구에 나타난 표현과 의미의 기호학적 분석*

- 17~19세기 수납가구를 중심으로 -

Semiotic Analysis of Expressive Features and Structural Meanings in Traditional Furni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 Focus on the Storage Furniture from 17th to 19th century -

Author 김은정 Kim, Eun-Jeong / 정희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디자인학박사
박영순 Park, Young-Soon / 정희원,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이학박사

Abstract The study aimed to fin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f aesthetics in Korea, China, and Japan by analyzing expressive features and structural meanings of the storage furniture from 17th to 19th century. The study was performed in four steps: analysis of expressive features, isotopic analysis, semantic structure analysis, and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countries had linear shapes with curvilinear elements, closed forms with open spaces, natural material hues with change of tone or color, and symmetrical forms with asymmetrical patterns and structures in common. Korea comparatively accented on the natural material colors and wood grains. China stressed on the big and wide faces using three-dimensional carving. Japan accented on the linear elements with strong color contrast and decorative metal fixtures. These features were caused by the traditional thoughts and according aesthetic principles. Korea and China were affected by the Confucianism focused on establishing the order of rank. Meanwhile, Japan was more influenced by the Buddhism emphasized on the individuality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differences of the expressive features in furniture among the three countries were inevitable consequences of the different ideologies.

Keywords 전통가구, 표현적 특성, 구조적 의미, 비교연구, 전통 미의식
Traditional Furniture, Expressive Feature, Structural Meaning, Comparative Study, Traditional aesthe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타일러(Tylor)는 문화란 인간이 주어진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지식, 신념, 예술, 법칙, 도덕, 관습 등의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을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보았다.¹⁾ 따라서, 문화의 형성배경이 되는 물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예술적 환경 등이 어떻게 다르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의 문화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것을 형성한 배경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는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사상적 뿌리가 동일한 한중일의 문화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지닌

다. 삼국이 중국에서 비롯된 유가, 불가, 도가 사상을 함께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동일한 사상이라도 시대와 풍토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를 수용하고 발달시켜왔기 때문이다. 사상은 국가 또는 집단의 공통적인 생각과 사고,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매우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대에 따라 사상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 종교로 자리 잡기도 하는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²⁾

이처럼 문화에 담긴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방법이 된다. 특히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국가를 함께 비교연구하는 것은 국가별 문화적 특성의 상대적 차이를 밝히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1) 송효섭, 문화기호학, 초판, 민음사, 서울, 1997, pp.14~15

2) 장승구 외, 동양사상의 이해, 초판, 경인문화사, 서울, 2003, pp.3~8

국이 지닌 조형미의 표현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국가별 디자인 정체성이 지닌 근원적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삼국의 전통조형미가 지닌 표현과 의미를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세계화하는데 매우 의미 깊은 일이 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은 전통가구의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뉜다.

가구의 표현적 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의 설정은 조형기호학자인 플로슈(Floch)가 제시한 범주를 참고하였다. 플로슈는 조형 분석의 범주로 형태, 색채, 위상³⁾ 범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높은/낮은, 밝은/어두운, 긴/짧은 등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특정 대상의 조형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플로슈가 제안한 형태, 색채, 위상 범주 외에 가구 표면에 사용된 장식, 문양과 패턴 장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태, 색채, 위상, 장식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가구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형태에서는 전체적인 실루엣, 전면(前面), 측면, 윗면, 내부구조, 다리와 바닥 등 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색채에서는 색상과 톤을, 위상에서는 대칭성의 여부와 비례를, 장식에서는 장식의 모양과 크기, 문양 및 패턴의 여부 및 표현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한 후, 대립적 관계가 발생하는 특성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의미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구의 의미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기호학자인 그레마스(Greimas)가 제시한 동위성 분석과 의미구조 분석을 참고하였다. 동위성 분석은 대립적 관계에 놓인 어휘구조를 추상적이지만 명확한 의미를 지닌 유사 어휘구조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해당한다. 의미구조 분석은 동위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어휘구조를 중심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범주를 추가하여 네 개의 항목들이 지니는 의미를 각각 파악한 뒤 유사한 항목끼리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고차원적 의미관계를 파악해내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langle A \leftrightarrow B \rangle$ 의 대립적 관계로 동위성 분석을 하면, A는 A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보다 추상적이고 명확한 의미의 어휘로 바뀌게 되어, $A = A' = A'' = A'''$ 의 상태로 의미 변화를 확장하게 된다. B역시 마찬가지로 $B = B' = B'' = B'''$ 등의 관계로 발전하게

<표 1> 그레마스의 동위성 분석과 의미구조 분석

분석 항목	방법 사례			
동위성 분석	$A \leftrightarrow B / A' \leftrightarrow B' / A'' \leftrightarrow B'' / A''' \leftrightarrow B'''$			
의미구조 분석	내포적 의미 관계 ↑ Not B'''	$A''' \leftrightarrow B'''$	↔	내포적 의미 관계 ↑ Not A'''

되어 결국 $\langle A \leftrightarrow B \rangle$ 의 관계는 $\langle A''' \leftrightarrow B''' \rangle$ 의 관계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위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langle A''' \leftrightarrow B''' \rangle$ 의 관계는 의미구조 분석에서 A'''와 B''', 그리고 이들의 대립 항목이 되는 Not A'''와 Not B'''의 네 가지 항목간의 관계를 통해 그 속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낸다.

이처럼 기호학에서 대립적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표현과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지니는 표현과 의미가 본래부터 제 스스로 존재하기 보다는, 상대적 위치에 있는 특성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비로소 그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엘름슬레우(Hielmslev)는 기호가 지닌 관계성이 보편성을 띠기보다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대립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⁵⁾

이상의 분석방법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구의 형태, 색채, 위상, 장식의 항목별로 대립구조가 성립되는 표현특성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동위성 분석을 통해 앞서 살펴본 대립관계를 보다 추상적인 의미관계로 발전시켰고, 3단계인 의미구조 분석에서는 그 속에 내포된 고차원적 의미관계를 동양의 미학원리를 통해 분석하였다. 4단계에서는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가구의 표현과 의미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이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며 예술문화의 전성기를 누렸던 17~19세기로 시대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가구들 중에서 삼국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하였던 수납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에 따른 의류와 침구 및 기타 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납가구가 다양하게 발달하였고, 중국은 광활한 토지로 인해 지역별 기후와 지형에 따른 생활방식에 맞추어 다양한 수납가구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반 가정에서 소유하는 물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면서 수납가구가 발달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좌식생활이 주를 이룬 반면, 중국은 입식생활에 따라 의자와 침대 등 입식구조의 가구가 크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달하였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3) 위상은 대상이 지니는 좌우, 상하, 주변과 중심 등의 위치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대칭성의 여부, 높이의 차이, 분산과 집중 등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위상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서승미,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4, p.66

5) 신항식, 시각영상 기호학, 초판, 나남출판, 파주, 2005

수납가구를 통해 표현과 의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삼국의 수납가구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가구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표성의 선정을 위해서 국가별로 전통 가구와 관련된 논문과 단행본을 참고하여 가장 빈번하게 대표성을 지닌다고 언급되어 있는 가구 유형을 추출하였다.⁶⁾

<표 2> 한중일 대표 수납가구 이미지 사례

국가	대표 수납가구 이미지		
	장/농	반닫이	문갑
한국
	케	주	격

중국	나가모찌	단스	다나

	일본		

한국은 일곱 편의 논문(김국선, 2004; 김진옥, 2006; 류티에준, 2009; 이순희, 1984; 왕배, 2009; 홍민정, 2001; 하재경, 2007)을 살펴본 결과, 장, 반닫이, 농, 문갑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일곱 권의 단행본을 참고하여 이들이 한국의 대표 수납가구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다. 네 개의 가구유형 중, 장과 농은 표현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과 농을 하나로 합쳐 분석대상을 장/농, 반닫이, 문갑의 세 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 3> 한국의 대표 수납가구 선정

한국	장	농	반닫이	함/케	문갑	탁자
김국선	◎	◎	◎	◎	◎	-
김진옥	◎	◎	◎	◎	◎	◎
류티에준	◎	◎	◎	◎	◎	-
이순희	◎	-	◎	◎	◎	-
왕배	◎	◎	◎	-	◎	-
홍민정	◎	◎	◎	-	-	-
하재경	◎	◎	◎	◎	◎	◎
계	7	6	7	5	6	2

6) 대표가구의 선정은 우선 논문을 통해 삼국의 대표 수납가구 유형을 조사한 뒤, 가장 많이 분석에 사용된 가구 유형을 세 가지씩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전통가구 관련 단행본을 통해 실제로 이들이 국가별 수납가구로서의 대표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중국은 일곱 편의 논문(김국선, 2004; 김진옥, 2006; 류티에준, 2009; 백봉옥, 1978; 이순희, 1984; 왕배, 2009; 하재경, 2007)을 참고하여 케, 주, 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은 크기가 작은 상자로 소품에 가까워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의 전통가구와 관련된 단행본 여덟 권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인 수납가구로 케, 주와 함께 장식용 수납선반에 해당하는 격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케(櫃), 주(櫥), 격(格)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4> 중국의 대표 수납가구 선정

중국	케	주	상	합	장	격
김국선	◎	◎	-	-	◎	-
김진옥	◎	◎	◎	-	-	-
류티에준	◎	◎	◎	◎	◎	◎
백봉옥	◎	◎	◎	-	-	-
이순희	◎	◎	◎	-	-	-
왕배	◎	◎	◎	-	-	-
하재경	◎	◎	◎	-	-	◎
계	7	7	6	1	2	2

일본은 네 편의 논문(김국선, 2004; 김진옥, 2006; 홍민정, 2001; 하재경, 2007)을 살펴본 결과, 단스, 나가모찌, 다나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전통가구와 관련된 다섯 권의 단행본을 참고하여 이 세 가지 가구 유형이 대표적 수납가구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나가모찌, 단스, 다나를 선정하였다.

<표 5> 일본의 대표 수납가구 선정

일본	단스	나가모찌	다나	도다나	카케스즈리	쓰즈리/고리/바코
김국선	◎	◎	◎	-	◎	◎
김진옥	◎	◎	◎	-	◎	-
홍민정	◎	◎	◎	◎	-	◎
하재경	◎	◎	◎	◎	-	◎
계	4	4	4	2	2	3

국가별 수납가구의 분석을 위한 이미지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유사한 이미지를 제외하고 최종 선별된 이미지 개수로, 한국은 총 65개(장/농 27개, 반닫이와 문갑이 각각 19개씩), 중국은 총 78개(케 30개, 주 18개, 격 30개), 일본은 49개(나가모찌 10개, 단스 29개, 다나 10개)의 이미지가 각각 분석에 사용되었다.

2. 한중일의 미학원리와 전통사상

2.1. 한중일의 미학원리

한중일의 전통 미의식은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은

소박한 자연미, 중국은 화려한 규모의 미, 일본은 정교하고 섬세한 미를 지닌 것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미의식의 바탕에는 미(美)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미학원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상반된 개념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미의식을 형성하는 미학원리에 대해 리빙하이(2011)와 윤재근(2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하였다.

<문(文)과 질(質)>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문(文)>과, 자연 본질의 근원적인 상태를 뜻하는 <질(質)>의 조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예(禮)와 악(樂)>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단절과,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된 소통의 관계를 의미한다. <중(中)과 화(和)>는 질서를 부여하여 꼭 들어맞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직성과, 서로 부드럽게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유연성의 관계를 말한다. <강(強)과 유(柔)>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굳세고 강함과, 약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드러움의 관계를 뜻한다. <동(動)과 정(靜)>은 세밀하고 빠른 움직임과 느슨하고 느린 상태의 고요함을 뜻하고, <청(淸)과 탁(濁)>은 열고 맑은 기운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짙고 흐린 기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은(隱)과 현(顯)>은 함축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숨김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되는 드러남의 관계를 말한다. <허(虛)와 실(實)>은 비어있음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채움의 관계를 뜻하고, <화(化)와 별(別)>은 유사한 법칙으로 통일성을 부여한 반복과 차별화된 질서를 부여한 변화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표 6> 한중일의 미학원리

문(文)과 질(質)	예(禮)와 악(樂)	중(中)과 화(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구미새>와 자연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는 <본바탕>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중시한 <단절>과 내면 중심의 조화를 중시한 <소통>	질서를 부여한 <경직성>과 부드러운 조화를 유도한 <유연성>
강(剛)과 유(柔)	동(動)과 정(靜)	청(淸)과 탁(濁)
강하게 드러나는 <굳셈>과 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부드러움>	빠르고 세밀한 <움직임>과 느리고 느슨한 <고요함>	열고 맑은 <가벼움>과 짙고 흐린 <무거움>
은(隱)과 현(顯)	허(虛)와 실(實)	화(化)와 별(別)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의 <숨김>과 직접적이고 명백한 표현의 <드러냄>	내향적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난 <비움>과 외향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채움>	유사한 법칙과 통일성을 부여한 <반복>과 차별화된 질서를 부여한 <변화>

2.2. 한중일의 전통사상

한중일의 전통 사상은 크게 유가, 불가, 도가 사상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적 발달에 깊이 관여하면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국가별로 사상의 개념과 실천적 방

법론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속에 담긴 핵심적인 원리와 의미는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였다.

17~19세기의 한국과 중국은 유가 사상이 정치와 사회적 이념으로 자리 잡아 생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예와 위계질서의 중요성을 고집하여 폐쇄적이고 이론과 형식 중심의 유가 사상을 발전시켰다. 중국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인간의 평등함을 강조한 양명학의 가치관도 함께 수용하여 한국 보다는 덜 폐쇄적인 형태로 유가 사상이 뿌리를 내렸다. 한편, 일본은 고대부터 내려온 고신도(古神道) 사상과 불가 사상이 결합하면서 정치제도 및 예술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불가 사상은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였고, 인간의 다양한 개성과 평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 유가 사상은 무가사회의 법 제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와 학문으로 수용되어 생활규범으로는 정착하지 못하였다. 도가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가 사상에 의한 탄압으로 민간신앙으로만 발달하였고, 중국에서는 유가 사상과 결합하여 의례적인 측면만 부각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불가, 고신도(古神道) 사상과 결합되면서 민간주술이 발달하였다. 결국, 한중일 삼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지배력을 지녔던 사상은 유가 사상과 불가 사상으로, 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 7> 유가사상과 불가사상의 핵심적 내용

사상	유가사상	불가사상
핵심 내용	-도덕적 인격완성	-극락왕생(極樂往生)
	-조화와 균형	-어리석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탈
	-사회질서(위계질서)	-인연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연기(緣起)
	-다양성의 인정	-불생불멸(不生不滅)
	-천인합일(天人合一)	-공(空)
	-예(禮)와 악(樂)	-무아(無我)
	-어진 마음을 내는 인(仁)	-선(禪)
	-명분을 중시하는 정명(正名)	-불이(不二)
	-수신(修身)과 극기(克己)	-중도(中道)
	-윤리적 가치관이 전제된 미(美)	
	-지행합일(知行合一)	

3. 한중일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분석

3.1. 한국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분석

(1) 1단계 - 표현특성 분석

한국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에서 장/농은 직선적인 형태의 육중한 몸체를 지닌 반면, 다리는 곡선적으로 처리하였고 모서리도 둥글게 깎아내었다. 반닫이는 앞면의 관계

7) <표 7>의 내용은 김영무(2009), 세계사상사연구회(2010), 우더신(2008), 장승구 외(2003), 장파(2010), 첸파핑(2008)의 단행본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종합 정리하였다.

를 가로 방향으로 면분할하고, 상단의 판재면은 상하 방향으로 열고 닫는 문으로 활용하고, 하단의 면은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였다. 문갑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폐쇄적 구조를 지니지만, 천판과 선반을 통해 소품을 장식하고 볼 수 있는 개방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색채에서 장/농, 문갑은 짙고 어두운 목재 표면에 밝고 화사한 장식을 작게 부착함으로써 밝고 화사한 색채와 짙고 어두운 색채의 대비를 이루었다. 반단이에서는 가구 표면을 짙고 어둡게 톤을 변화시켰으나,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상에서 장/농은 좌우대칭의 규칙적인 면분할이 이루어진 동시에 면분할의 비례와 크기는 변화를 주었고, 반단이는 동일한 패턴으로 커넨 나뭇결은 대칭적으로 배치하되 면분할은 일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문갑은 좌우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니지만, 상하 방향으로서는 비대칭적인 구획이 이루어졌다. 장식에서는 세 가구 유형 모두 장식을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부착하되, 표면에는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이 부착되었다.

<표 8> 한국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 특성

항목	장/농	반단이	문갑
형태	직선적인 형태의 육중한 몸체 ↔ 곡선적인 형태의 가늘고 짧은 다리	상하로 열고 닫는 상단의 문 ↔ 고정된 하단의 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폐쇄적 구조 ↔ 소품 장식을 위한 천판과 선반
색채	좁은 면적에 밝고 화사한 색채 ↔ 넓은 면적에 짙고 어두운 색채	짙고 어둡게 톤을 변화시킨 몸체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좁은 면적에 밝고 화사한 색채 ↔ 넓은 면적에 짙고 어두운 색채
위상	좌우대칭의 규칙적인 면분할 ↔ 다양한 비례의 면구성	동일한 패턴으로 커넨 나뭇결의 대칭적 배치 ↔ 일정하지 않은 비례로 분할된 면	좌우의 동일한 배열 ↔ 상하의 동일하지 않은 구획
장식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2) 2단계 - 동위성 분석

앞서 파악된 대립적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각각 동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에서는 <직선 ↔ 곡선>, <수직 ↔ 수평>, <폐쇄 ↔ 개방>의 의미관계가 나타났다. 색채에서는 <가벼움 ↔ 무거움>, <인위 ↔ 자연>의 이항대립구조가 나타났고, 위상에서는 <규칙성 ↔ 다양성>, <대칭 ↔ 비대칭>의 관계가 파악되었으며, 장식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위 ↔ 자연>의 대립적 의미관계가 나타났다.

(3) 3단계 - 의미구조 분석

동위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대립적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에 있어서 장/농은 <중(中)과 화(和)>, 반단이는 <동(動)과 정(靜)>, 문갑은 <예(禮)와 악(樂)>의 각기 다른 의미를 드러내었다. 색채에서는 장/농, 문갑이 <청(淸)과 탁

(濁)>, 반단이는 <문(文)과 질(質)>의 의미관계를 나타냈다. 위상에서는 세 가구 모두 <화(化)와 별(別)>의 관계가 나타났고, 장식에서는 <문(文)과 질(質)>이 공통적으로 파악되었다.

<표 9> 한국 전통 수납가구의 대립적 표현특성과 그에 따른 동위성 분석

항목	장/농	반단이	문갑
형태	/직선적인 형태의 육중한 몸체 ↔ 곡선적인 형태의 가늘고 짧은 다리/ = /직선적인 몸체 ↔ 곡선적인 다리/ = /직선 ↔ 곡선/	/상하로 열고 닫는 상단의 문 ↔ 고정된 하단의 면/ = /수직방향의 움직임 ↔ 수평방향의 고정/ = /수직 ↔ 수평/	/물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폐쇄적 구조 ↔ 소품장식을 위한 천판과 선반/ = /기능을 위한 폐쇄적 공간 ↔ 장식을 위한 개방공간/ = /폐쇄 ↔ 개방/
색채	/좁은 면적에 밝고 화사한 색채 ↔ 넓은 면적에 짙고 어두운 색채/ = /밝고 화사함 ↔ 짙고 어둡음/ = /가벼움 ↔ 무거움/	/짙고 어둡게 톤을 변화시킨 몸체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톤 ↔ 자연 그대로의 색상/ = /인위 ↔ 자연/	/좁은 면적에 밝고 화사한 색채 ↔ 넓은 면적에 짙고 어두운 색채/ = /밝고 화사함 ↔ 짙고 어둡음/ = /가벼움 ↔ 무거움/
위상	/좌우대칭의 규칙적인 면분할 ↔ 다양한 비례의 면구성/ = /규칙적인 면분할 ↔ 다양한 면비례/ = /규칙성 ↔ 다양성/	/동일한 패턴으로 커넨 나뭇결의 대칭적 배치 ↔ 일정하지 않은 비례로 분할된 면/ = /대칭적 배치 ↔ 비대칭적 면배치/ = /대칭 ↔ 비대칭/	/좌우의 동일한 배열 ↔ 상하의 동일하지 않은 구획/ = /좌우 대칭 ↔ 상하 비대칭/ = /대칭 ↔ 비대칭/
장식	/단순하고 추상적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 /인위적인 형태 ↔ 자연적인 형태/ = /인위 ↔ 자연/	/단순하고 추상적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 /인위적인 형태 ↔ 자연적인 형태/ = /인위 ↔ 자연/	/단순하고 추상적 형태의 장식 ↔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나뭇결/ = /인위적인 형태 ↔ 자연적인 형태/ = /인위 ↔ 자연/

(4) 4단계 - 종합 해석

이상의 단계별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전통 수납 가구는 경직성과 유연함, 단절과 소통, 꾸밈새와 본바탕, 반복과 변화, 가벼움과 무거움의 원리를 통해 미(美)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직선적 형태에 부드러운 곡선의 처리, 기능을 중시하여 폐쇄적 구조를 취하되 장식을 위한 개방성의 부여, 자연 재료를 존중하되 인위적 톤 조절, 엄격한 대칭적 구조와 자유로운 형태의 나뭇결 패턴, 면과 선의 조화로운 구성 등의 표현방식을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엄격하게 규칙성을 부여하고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유가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격한 위계질서의 부여와 도덕적 인격의 수양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연재료인 목재의 색채와 나뭇결 등을 최대한 유지하고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한 것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자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수납가구는 위계질서의 부여와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태도를 강조한 유가 사상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한국 전통 수납가구의 의미구조 분석

장/농 - 형태		반달이 - 형태	
직선 직선적인 형태의 육중한 몸체	↔	곡선 곡선적인 형태의 다리	↔
중(中)	×	화(和)	×
비(非)곡선 골재를 수직, 수평으로 잇대어 직선적 면분할	↔	비(非)직선 몸체의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게 완곡하게 처리	↔
수직 상하로 닫고 닫는 문	↔	수평 수평적 비례가 강조된 형태	↔
동(動)	×	정(靜)	×
비(非)수평 상하로 판재의 면 분할	↔	비(非)수직 수평으로 배열된 나뭇결의 방향	↔
문갑 - 형태		장/농, 문갑 - 색채	
폐쇄 사면이 판재로 막힌 폐쇄적인 구조	↔	개방 소품장식을 위한 전판과 선반의 열린 구조	↔
예(禮)	×	악(樂)	×
비(非)개방 숨겨진 잠금장치와 두껍달이 문	↔	비(非)폐쇄 앞면이 뚫린 형태의 선반 구조	↔
가벼움 밝고 화사한 장식의 색채	↔	무거움 짙고 어두운 목재의 색채	↔
정(靚)	×	탁(濁)	×
무겁지 않음 색상은 YR 계열로 따뜻한 난색 유지	↔	가볍지 않음 검정색의 무늬 장식 적용하기도 함	↔
반달이 - 색채		장/농 - 위상	
인위 짙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자연 목재가 지닌 YR 계열의 자연 색상 유지	↔
문(文)	×	질(質)	×
비(非)자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짙고 어둡어진 장식의 톤	↔	비(非)인위 재료색이 그대로 드러난 장식의 색채	↔
규칙성 좌우대칭 구조를 이루는 면분할	↔	다양성 다양한 크기와 비례를 지닌 면구성	↔
화(化)	×	별(別)	×
비(非)다양성 동일한 크기와 비례의 면이 일정하게 반복	↔	불규칙성 상하 방향으로 비대칭적인 구조	↔
반달이 - 위상		문갑 - 위상	
대칭 동일한 패턴으로 커널 나뭇결의 대칭적 배열	↔	비대칭 일정하지 않은 비례로 분할된 면	↔
화(化)	×	별(別)	×
비대칭 아님 좌우대칭 구조로 배치된 장식	↔	대칭 아님 다양한 형태의 나뭇결과 장식의 모양	↔
장/농, 반달이, 문갑 - 장식		-	
인위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장식	↔	자연 자유로운 형태의 나뭇결	↔
문(文)	×	질(質)	×
비(非)자연 나뭇결의 방향과 패턴을 인위적으로 통일하게 조절	↔	비(非)인위 국수, 악과, 꽃, 박쥐 등 자연을 모티브로 사용	↔

3.2. 중국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분석

(1) 1단계 - 표현특성 분석

중국의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형태에서 궤(櫃)는 크고 너른 판재면과 그 사면을 두르고 있는 골재 프레임이 면과 선의 대립적 요소를 드러내고, 주(櫥)는 직선적인 형태가 강조된 몸체에 아자(牙子)와 같이 복잡한 곡선 형태의 구조물이 추가된 형태를 지녔다. 격(格)은 하단에 사면이 막힌 형태의 장구조로 되어있으나, 상단은 면의 일부가 뚫린 형태의 선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색채에서는 세 가구 모두 동일하게 차분하고 어둡게 목재의 톤을 변화시키되 대체적으로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은 유지하였다. 위상에서는 세 가구 모두 좌우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궤(櫃)는 면마다 서로 다른 문양장식을 부여하였고, 주(櫥)는 아래로 갈수록 다리간격이 넓어지거나 앞뒤 다리 형태가 다르게 제작되었다. 격(格)은 선반배치에 있어 비대칭성을 드러내었다. 장식에서는 궤(櫃)와 주(櫥)가 넓

은 면을 그대로 비워두거나 문양 조각으로 가득 채워 넣은 특성을 드러내었고, 격(格)은 면이 뚫린 형태 또는 투각으로 선반의 벽면에 개방성을 부여하되, 모서리 주위에 장식 구조를 추가하거나 조각문양으로 채워 넣었다.

<표 11> 중국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 특성

항목	궤	주	격
형태	판재면을 두르고 있는 골재 프레임 ↔ 크고 너른 판재면	직선적인 형태가 강조된 몸체 ↔ 곡선적인 형태가 부각된 구조적 요소	사면이 막힌 형태의 장구조 ↔ 면의 일부가 뚫린 형태의 선반 구조
색채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위상	좌우 대칭적 구조 ↔ 비대칭적으로 적용된 면의 패턴	좌우 대칭적 구조 ↔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다리와 앞뒤가 다르게 제작된 다리	기본적인 좌우대칭 구조 ↔ 선반의 배치에 따른 자유로운 공간 분할
장식	별도의 패턴이나 문양 없이 나뭇결이 드러난 판재 ↔ 면 전체에 가득 메운 장식적 문양 조각	별도의 패턴이나 문양 없이 나뭇결이 드러난 판재 ↔ 면 전체에 가득 메운 장식적 문양 조각	면이 뚫린 형태 또는 투각으로 개방성이 부여된 선반의 벽면 → 면에 새겨진 조각문양과 아자 장식

<표 12> 중국 전통 수납가구의 대립적 표현특성과 동위성 분석

항목	궤	주	격
형태	/판재면을 두르고 있는 골재 프레임 ↔ 크고 너른 판재면/ = /골재 프레임 ↔ 판재면/ = /선 ↔ 면/	/직선적 형태가 강조된 몸체 ↔ 곡선적인 형태가 부각된 구조적 요소/ = /직선적 몸체 ↔ 곡선적 장식/ = /직선 ↔ 곡/	/사면이 막힌 형태의 장구조 ↔ 면의 일부가 뚫린 형태의 선반 구조/ = /막힌 구조 ↔ 뚫린 구조/ = /폐쇄 ↔ 개방/
색채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 /인위적으로 변화된 톤 ↔ 자연색상/ = /인위 ↔ 자연/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 /인위적으로 변화된 톤 ↔ 자연색상/ = /인위 ↔ 자연/	/차분하고 어둡게 변화시킨 목재의 톤 ↔ 목재가 지닌 YR계열의 자연색상/ = /인위적으로 변화된 톤 ↔ 자연색상/ = /인위 ↔ 자연/
위상	/좌우 대칭적 구조 ↔ 비대칭적으로 적용된 면의 패턴/ = /대칭적 구조 ↔ 비대칭적 패턴/ = /대칭 ↔ 비대칭/	/좌우 대칭적 구조 ↔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앞뒤가 다르게 제작된 다리/ = /좌우대칭 구조 ↔ 비대칭 구조/ = /대칭 ↔ 비대칭/	/기본적인 좌우대칭 구조 ↔ 선반 배치에 따른 자유로운 공간 분할/ = /좌우대칭 구조 ↔ 비대칭적 공간분할/ = /대칭 ↔ 비대칭/
장식	/별도의 문양 없이 나뭇결이 드러난 판재 ↔ 면 전체에 가득 메운 문양 조각/ = /장식이 적용되지 않은 면 ↔ 인위적 장식적으로 채워진 면/ = /비움 ↔ 채움/	/별도의 문양 없이 나뭇결이 드러난 판재 ↔ 면 전체에 가득 메운 문양 조각/ = /장식이 적용되지 않은 면 ↔ 인위적 장식적으로 채워진 면/ = /비움 ↔ 채움/	/면이 뚫린 형태 또는 투각으로 개방성이 부여된 선반의 벽면 → 면에 새겨진 조각문양과 아자 장식/ = /개방성 부여 ↔ 장식성 추가/ = /비움 ↔ 채움/

(2) 2단계 - 동위성 분석

앞서 파악된 대립적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동위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형태에서는 <선 ↔ 면>, <직선 ↔ 곡선>, <폐쇄 ↔ 개방>의 관계가 나타났다. 색채에서는 세 가구가 동일하게 <인위 ↔ 자연>의 대립적 관계를 드러내었고, 위상에서는 <대칭 ↔ 비대칭>의 관계를, 장식에서는 <비움 ↔ 채움>의 의미관계를 각각 공통적으로 나타내었다.

(3) 3단계 - 의미구조 분석

동위성 분석을 통해 파악된 대립적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구조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형태에서는 <은(隱)과

현(顯)>, <중(中)과 화(和)>, <예(禮)와 악(樂)>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색채에서는 형식적인 꾸밈새와 본질적인 바탕의 조화를 의미하는 <문(文)과 질(質)>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위상에서는 통일성이 부여된 법칙의 반복과 차별화된 특성을 드러내는 변화를 의미하는 <화(化)와 별(別)>이 공통적으로 파악되었다. 장식에서는 비움과 채움의 균형적 상태를 뜻하는 <허(虛)와 실(實)>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중국 전통 수납가구의 의미구조 분석

계 - 형태		주 - 형태	
선 판재면을 둘러싼 골재 프레임	↔	면 사면을 막고 있는 크고 너른 판재면	↔
은(隱) ↑	×	현(顯) ↑	×
비(非) 면 일부 면에 투각으로 선적 요소 부각	↔	비(非) 선 굵은 골재 프레임 을 이음으로 둘러 일정한 면적 발생	↔
계 - 색채		주 - 색채	
패쇄 사면이 막힌 형태 의 장 구조	↔	개방 앞면, 측면, 뒷면 등이 열린 형태의 선반구조	↔
예(德) ↑	×	악(義) ↑	×
비(非) 개방 상하 중널에 따른 단절된 구조	↔	비(非) 패쇄 판재 면에 투각으로 개방성 부여	↔
계 - 위상		주 - 위상	
대칭 좌우 대칭 구조의 형태	↔	비대칭 면마다 다르게 적용 된 패턴과 문양	↔
화(化) ↑	×	별(別) ↑	×
비대칭 아님 패턴의 배열과 적용 방식은 대칭성을 지님	↔	비대칭 아님 비대칭적 구조를 지님 장화 방향의 연구성	↔
계 - 장식		주 - 장식	
대칭 좌우 대칭 구조의 형태	↔	비대칭 선반의 비대칭적 배치	↔
화(化) ↑	×	별(別) ↑	×
비대칭 아님 아자(牙子) 장식 과 문양의 배열에 대칭성 부여	↔	비대칭 아님 면마다 다르게 적용 된 패턴과 문양	↔
계 - 질		주 - 질	
비움 앞면, 측면, 뒷면 등이 열린 형태의 선반	↔	채움 면 전체에 일체적 문양과 패턴 장식	↔
허(虛) ↑	×	실(實) ↑	×
채우지 않음 목재를 깎아내고 면을 제거함으로써 문양 장식	↔	채우지 않음 목재가 개방된 선 반 틀레에 아자 (牙子) 추가	↔

(4) 4단계 - 종합 해석

단계별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중국의 전통 수납가구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가사상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전통 수납가구를 통해 숨김과 드러냄, 단절과 소통, 꾸밈새와 본바탕, 반복과 변화, 비움과 채움, 경직과 유연성 등의 원리를 통해 미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원리들은 선적인 요소보다는 크고 너른 면을 부각시켜 공간감을 강조하거나, 투각을 이용하여 면에 개방성과 장식성을 부여한 점, 각 면

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문양 장식을 조각한 점, 수직으로 뻗은 직선적인 형태에 복잡한 곡선 장식을 부여한 점, 면을 비워두거나 조각장식으로 가득 채운 점 등을 통해 표현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숨김과 드러냄, 비움과 채움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들은 공간을 비우거나 장식을 위해 가득 채우는 방식, 또는 크고 너른 면을 부각시켜 규모감과 공간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한국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정명(正名)의 개념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단절과 소통, 반복과 변화, 꾸밈새와 본바탕, 경직과 유연성의 원리를 통해 폐쇄적인 구조에 적절한 개방성을 부여하거나, 좌우대칭의 구조에 비대칭적 장식 요소를 부여하고 직선적 구조에 복잡한 곡선적 장식을 가미하는 등 대립적인 요소들의 균등한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각 면마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각기 다른 형태의 패턴과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공간에 따른 차등화된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가사상의 기본 이념을 드러내었다. 결국, 중국의 전통 수납가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계질서를 강조한 유가 사상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지만, 한국이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과 달리, 중국은 시대 명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정명(正名)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일본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분석

(1) 1단계 - 표현특성 분석

일본의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에서 나가모찌는 직선적인 형태의 육면체 몸체를 기본으로 하되, 윗면을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거나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단스는 다양한 크기의 서랍과 장으로 면분할을 하되, 공간분할을 위해 면 주위에 둘러진 프레임으로 선적인 요소가 발생하였다. 다나는 상하 방향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막혀있지만, 좌우 또는 앞뒤로는 뚫린 형태의 선반으로 되어 있다. 색채에서 나가모찌는 검정색 바탕에 명도와 채도가 높은 밝고 화려한 색채로 문양을 새겨 넣어 색채대비가 매우 강하게 발생하였다. 단스와 다나는 검정색의 칠 바탕 또는 장식과 함께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채가 어우러져 인위적인 색채와 자연색채가 함께 나타났다.

위상에서는 세 가구 모두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나가모찌는 문양을 비대칭적으로 적용하였고, 단스와 다나는 비대칭적인 면/공간 분할을 시도하였다. 장식에서 나가모찌는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문양과 패턴

의 크기를 키운 반면, 장식은 구조보강 및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였다. 단스 역시 커다랗고 정교한 형태의 문양으로 면을 장식하되, 구조보강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위해 장식을 앞면에 집중적으로 부착하였다. 다나는 면에 장식을 위한 문양을 새기되, 구조보강과 기능적 측면을 위해 장식과 패널을 덧붙였다.

<표 14> 일본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대립적 표현 특성

항목	나가모찌	단스	다나
형태	직선적인 형태의 육면체 몸체 ↔ 윗면의 완만한 곡선과 부드럽게 처리한 모서리	다양한 크기의 사람 또는 장으로 이루어진 면 분할 ↔ 판재 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재 프레임	상하 층의 선반과 장 구조로 인해 공간 분할 ↔ 선반의 뚫린 측면
색채	명도와 채도가 높은 밝고 화려한 색채 장식 ↔ 검정색의 바탕	검정색의 칠/장식 ↔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채	검정색의 칠/장식 ↔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채
위상	좌우대칭적 구조 ↔ 일부 구조 또는 문양의 비대칭적 적용	동일한 구조/형태의 서랍 반복 ↔ 다양한 비례와 크기로 비대칭 구조 형성	규칙적인 구조와 패턴의 반복 ↔ 비대칭적인 자유로운 공간 배치
장식	장식을 목적으로 면에 크게 새겨진 문양과 패턴 ↔ 구조 보강 및 기능에 충실한 장식	장식적 모양과 크기가 큰 형태의 문양/패턴 ↔ 이동성을 고려한 장식의 부착	면에 적용된 문양 장식 ↔ 기능에 충실한 장식과 구조보강을 위해 덧댄 투각 패널

<표 15> 일본 전통 수납가구의 대립적 표현특성과 동위성 분석

항목	나가모찌	단스	다나
형태	/직선적인 형태의 육면체 몸체 ↔ 윗면의 완만한 곡선과 부드럽게 처리한 모서리/ = /직선 ↔ 곡선/	/다양한 크기의 사람 또는 장으로 이루어진 면 분할 ↔ 판재 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재 프레임/ = /면 ↔ 선/	/상하 층의 선반과 장 구조로 인해 공간 분할 ↔ 선반의 뚫린 측면/ = /상하로 막힌 공간 ↔ 측면이 뚫린 구조/ = /폐쇄 ↔ 개방/
색채	/명도와 채도가 높은 밝고 화려한 색채 장식 ↔ 검정색의 바탕칠/ = /밝고 화려한 색채 ↔ 검정색/ = /화려함 ↔ 차분함/	/검정색의 칠/장식 ↔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채/ = /검정색 ↔ 목재의 자연색채/ = /인위 ↔ 자연/	/검정색의 칠/장식 ↔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채/ = /검정색 ↔ 목재의 자연색채/ = /인위 ↔ 자연/
위상	/좌우대칭적 구조 ↔ 일부 구조 또는 문양의 비대칭적 적용/ = /좌우대칭 구조 ↔ 비대칭 구조/ = /대칭 ↔ 비대칭/	/동일한 구조/형태의 서랍 반복 ↔ 다양한 비례와 크기로 비대칭 구조 형성/ = /동일한 구조의 반복 ↔ 다양한 비례의 변화/ = /반복 ↔ 변화/	/규칙적인 구조와 패턴의 반복 ↔ 비대칭적인 자유로운 공간 배치/ = /규칙적인 패턴의 반복 ↔ 비대칭적인 공간 배치/ = /반복 ↔ 변화/
장식	/장식을 목적으로 면에 크게 새겨진 문양과 패턴 ↔ 구조 보강 및 기능에 충실한 장식/ = /장식을 위한 문양/패턴 ↔ 기능에 충실한 장식/ = /장식 ↔ 기능/	/장식적 모양과 크기가 큰 형태의 문양/패턴 ↔ 이동성을 고려한 장식의 부착/ = /정교한 문양/패턴 ↔ 구조보강을 위한 장식/ = /장식 ↔ 기능/	/면에 적용된 문양 장식 ↔ 기능에 충실한 장식과 구조보강을 위해 덧댄 투각 패널/ = /장식적인 문양을 고려한 패턴 장식/ = /장식 ↔ 기능/

(2) 2단계 - 동위성 분석

앞서 살펴본 대립적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동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에서는 <직선 ↔ 곡선>, <면 ↔ 선>, <폐쇄 ↔ 개방>의 의미관계가 나타났다. 색채에서는 <화려함 ↔ 차분함>, <인위 ↔ 자연>의 대립적 의미관계가 파악되었고, 위상에서는 <대칭 ↔ 비대칭>,

<반복 ↔ 변화>의 관계가 드러났다. 장식에서는 <장식 ↔ 기능>의 대립관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3) 3단계 - 의미구조 분석

동위성 분석을 통해 파악된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구조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일본 전통 수납가구의 의미구조 분석

나가모찌 - 형태	단스 - 형태
<div>직선</div> <div>직선적 형태의 몸체</div> <div>중(中)</div> <div>비(非) 곡선</div> <div>골재를 덧대어 수직, 수평으로 분할된 면구성</div>	<div>곡선</div> <div>윗면의 완만한 곡선적 형태</div> <div>화(和)</div> <div>비(非) 직선</div> <div>모서리 등글게 처리</div>
다나 - 형태	나가모찌 - 색채
<div>폐쇄</div> <div>상하 층의 선반과 장 구조로 인해 분리된 공간</div> <div>예(禮)</div> <div>비(非) 개방</div> <div>일부 장 구조는 사이막이 막힌 폐쇄적 형태</div>	<div>개방</div> <div>선반의 측면을 뚫린 상태로 두어 개방성 부여</div> <div>악(樂)</div> <div>비(非) 폐쇄</div> <div>판재 면에 투각으로 개방성을 부여</div>
단스, 다나 - 색채	나가모찌 - 위상
<div>인위</div> <div>목재와 골재 프레임에 적용된 검정색의 칠</div> <div>문(文)</div> <div>비(非) 자연</div> <div>목재의 통을 황색, 적색을 비롯하여 짙고 어두운 색채</div>	<div>자연</div> <div>목재의 자연색상이 드러난 면의 색채</div> <div>질(質)</div> <div>비(非) 인위</div> <div>무늬를 비롯한 재료색이 그대로 드러난 장식의 색채</div>
단스 - 위상	다나 - 위상
<div>반복</div> <div>동일한 형태와 구조로 구성된 면의 반복</div> <div>화(化)</div> <div>비(非) 변화</div> <div>동일한 형태의 장식을 규칙적으로 배치</div>	<div>변화</div> <div>가로폭과 높이의 비례를 다양하게 변화</div> <div>별(別)</div> <div>비(非) 반복</div> <div>구조에 따라 장과 서랍을 다양한 구성 배치</div>
나가모찌 - 장식	단스 - 장식
<div>장식</div> <div>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면에 크게 적용된 문양과 패턴</div> <div>문(文)</div> <div>비(非) 기능</div> <div>문체에 비해 과장된 크기로 적용된 문양과 패턴</div>	<div>기능</div> <div>구조보강 및 기능에 충실한 장식</div> <div>질(質)</div> <div>비(非) 장식</div> <div>기능에 충실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제작된 장식</div>
다나 - 장식	-
<div>장식</div> <div>면에 적용된 회화적 문양 칠장식</div> <div>문(文)</div> <div>비(非) 기능</div> <div>동일한 패턴의 반복이 아닌 다양한 소재의 적용</div>	<div>기능</div> <div>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된 장식</div> <div>질(質)</div> <div>비(非) 장식</div> <div>구조보강을 위해 덧대어진 투각 패널</div>

형태에서는 <중(中)과 화(和)>, <은(隱)과 현(顯)>, <예(禮)와 악(樂)>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색채와 장식에서는 형식적인 꾸밈새와 본질적인 바탕을 의미하는 <문(文)과 질(質)>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위상에서는 반복과 변화의 균형을 뜻하는 <화(化)와

별(別)>이 세 가구에서 동일하게 드러났다.

(4) 4단계 - 종합 해석

단계별 분석내용을 종합한 결과, 일본의 전통 수납가구는 한국, 중국과 달리 불가 사상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일본의 수납가구는 직선적 형태에 완만한 곡선의 부여, 폐쇄적 구조와 개방적 구조의 절충, 자연재료에 인위적 색채 변화, 대칭적 형태와 비대칭적 구조의 자유로운 결합, 선적인 요소의 부각, 강한 색채대비, 장식과 기능의 절충적인 표현 등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경직성과 유연함, 단결과 소통, 꾸밈새와 본바탕, 반복과 변화, 숨김과 드러냄 등의 원리를 내포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형식과 본질적인 내면을 중시하는 <문(文)과 질(質)>이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인 자연적인 재료에 인위적인 톤의 조절이나 채색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원리를 드러내었다면, 일본은 검정색 바탕에 화려한 색채장식을 적용하여 강한 색채의 대비효과를 즐겨 사용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중국이 크고 너른 면을 강조하여 규모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일본은 섬세하고 절제된 형태를 강조하여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가구의 외형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가구의 앞면에 부착된 장식은 이동이 잦았던 가구의 특성상 구조보강을 위해 과장된 크기로 제작하여 앞면에 집중적으로 부착하였고, 크기가 커진 만큼 정교한 장식이 가능하여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장식적 표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본은 장식과 기능, 직선과 곡선의 절충적인 표현을 통해 절제되면서도 화려하고 섬세한 미를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절충적인 특성에 대해 이상엽과 정희순(2006)은 양면가치성(ambivalence)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지닌 이러한 미의식은 불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인 해석에 따른 차이를 지니는 것이지 본질은 하나임을 강조한 불이(不二)의 개념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달리 비대칭성과 변화를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불가의 평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전통 수납가구는 개성과 소통을 중시하고, 절충성과 양면가치성을 지닌 불이(不二)를 기반으로 한 불가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파악하였다.

3.4. 한중일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구조 비교

(1) 표현적 특성 비교

한중일 삼국의 전통 수납가구에 나타난 표현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유사한 특성과 차이

점이 나타났다.

직선과 곡선의 사용에 있어서 삼국의 가구들은 모두 직선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한국은 다리와 모서리 부분에 부드러운 곡선을 가미하였고, 중국은 복잡한 형태의 곡선 장식이 두드러졌으며, 일본은 완만한 곡선이 구조에 적용되었다. 판재와 골재의 사용에 따른 면과 선의 구성에서는 한국은 판재 위에 골재를 덧붙여 작게 면분할을 시도한 반면, 중국은 크고 너른 판재를 강조되 구조보강을 위해 판재 주변에 골재로 프레임을 둘렀다. 일본은 분할된 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채색이나 띠장식을 둘러 선적 요소가 부각되도록 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가구 하단에 다리를 부착하여 바닥과 밀착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일본은 가구의 다리를 없애고 바닥과 가구가 밀착되어 손으로 밀어서 이동하기 좋도록 고려하였다. 폐쇄성과 개방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가장 폐쇄적인 성격이 두드러졌고, 중국은 투각으로 면에 개방성을 부여하였으며, 일본은 면 전체를 뚫어서 개방감을 강조하였다.

<표 17> 한중일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적 특성 비교

	한국	중국	일본
형태 - 선적인 표현 특성	-직선 형태의 구조와 부드러운 곡선 처리	-직선 형태의 구조와 복잡한 곡선 장식	-직선 형태의 구조와 완만한 곡선 처리
형태 - 면과 선의 조화	-판재 위에 골재 덧붙여 작은 면분할	-크고 너른 판재에 둘러진 골재 프레임	-선적 요소가 두드러진 면분할
형태 - 바닥과 가구의 관계	-바닥과 밀착되지 않는 다리 구조	-바닥과 밀착되지 않는 다리 구조	-다리 없이 바닥에 밀착되는 구조
형태 - 구조	-폐쇄적인 구조의 부각	-폐쇄적 구조에 반(半) 개방성 부여	-폐쇄적 구조와 개방적 구조의 병행
색채 - 색상과 톤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톤의 자연색채	-차분하고 안정된 톤의 자연/인위 색채	-대비가 강한 자연/인위 색채
위상 - 대칭성	-엄격한 대칭구조와 패턴의 대칭적 배열	-대칭구조에 비대칭 문양과 패턴 부여	-비대칭적 구조와 패턴의 적용
장식 - 문양의 특성과 표현	-자연적인 나뭇결의 은은한 패턴	-나뭇결을 드러내거나 복잡한 입체 조각으로 면 장식	-과장된 크기의 문양 및 기능적 장식의 장식적 표현
종합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비례 -부드럽고 자연적인 표현	-크고 너른 공간감(규모감) -복잡하고 화려한 표현	-절제되고 섬세한 실루엣 -화려하고 정교한 표현

색채에서 한국은 자연목재가 지닌 색채를 최대한 유지하되 짙은 톤으로 변화시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전달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목재 표면에 주칠, 황칠, 흑칠 등의 인위적인 색을 덧입히기도 하였다. 위상의 범주에서 한국은 엄격한 대칭성을 강조하되 나뭇결의 자유로운 패턴을 부각시켰고, 중국과 일본은 대칭구조에 각기 다른 문양과 패턴, 구조의 변형 등을 적용하여 비대칭성을 드러내었다. 장식에서는 한국이 자연적인 나뭇결을 중심으로 장식적 패턴이 활용된 반면, 중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문

양이 면 전체에 입체적으로 조각되었고, 일본은 커다란 크기의 문양과 정교한 형태의 장식이 사용되었다.

(2) 의미 구조

삼국의 수납가구가 지닌 의미 구조를 비교한 결과, 동위성분석을 통해 삼국이 직선적 형태에 곡선적 요소의 부여, 폐쇄적 구조에 개방성 부여, 자연적 재료에 인위적 색채 변화, 대칭적 형태에 비대칭적 패턴과 구조의 변화 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수직과 수평 방향의 교차, 가벼움과 무거움, 규칙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드러내었고, 중국은 선과 면의 대비, 면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장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선과 면의 대비, 화려한 색채와 차분한 바탕, 일정한 규칙의 반복과 변화의 시도, 장식과 기능의 절충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의 바탕에는 <중(中)과 화(和)>, <예(禮)와 악(樂)>, <문(文)과 질(質)>, <화(化)와 별(別)>의 의미관계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경직과 유연함, 단절과 소통, 꾸밈새와 본바탕, 반복과 변화 등의 원리가 삼국의 미의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뜻하는 <동(動)과 정(靜)>, 가벼움과 무거움을 뜻하는 <청(淸)과 탁(濁)>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중국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의미하는 <허(虛)와 실(實)>이, 일본은 숨김과 드러냄의 조화를 뜻하는 <은(隱)과 현(顯)>의 의미가 상대적 차이로 나타났다.

이상의 의미관계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위계질서를 강조하였던 유가사상의 이념이 반영되었고, 일본은 개성과 평등을 중시하였던 불가사상의 이념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함께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자세가 반영되어 대칭성과 규칙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자연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통 수납가구가 발달하였다. 중국은 위계질서의 강조 및 형식과 내용, 명분과 실용의 조화를 중시한 정명(正名)사상을 바탕으로 직선/곡선, 폐쇄/개방, 인위/자연, 대칭/비대칭, 선/면, 비움/채움 등의 대립적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한 수준으로 대비를 이루었다. 일본은 개성과 소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은 원래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강조하는 불가사상의 불이(不二) 개념을 바탕으로 비대칭성이 삼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대립된 요소의 절충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삼국은 형태, 색채, 위상, 장식 등의 표현적 특성에서 유사하면서도 고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는 각기 다른 사상적 이념과 미학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8> 한중일 전통 수납가구의 표현과 의미 구조 비교

항목	한국	중국	일본
표현적 특성	직선적 형태에 곡선 요소 부여, 폐쇄적 구조에 개방성 부여, 자연적 재료에 인위적인 색채 변화, 대칭적 형태에 비대칭적 패턴과 구조 변화	-크고 너른 면의 두드러짐 -면에 투각 또는 무(無)장식으로 공간을 비우거나, 장식적으로 가득 채움	-선적인 요소의 두드러짐 -강한 색채대비 효과 -장식의 장식적 표현
	-면과 선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자연색채와 나뭇결의 은은한 패턴		
미학원리	경직성과 유연함, 단절과 소통, 꾸밈새와 본바탕, 반복과 변화		
	움직임과 고요함 가벼움과 무거움	비움과 채움	숨김과 드러냄
사상적 배경	유가사상		불가사상
	-자연재료가 지닌 본질적 특성의 존중 -엄격한 위계질서와 도덕적 인격의 완성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	-동등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사회질서 추구 -상하 위계질서의 부여 -시대명분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정명(正名)	-요소들간의 절충적 태도를 취해 자연스러운 조화 유도 -개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평등의식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뜻하는 불이(不二)

4. 결론

본 연구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한중일 삼국의 전통 수납가구를 통해 길으로 드러나는 조형미를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된 미학원리와 사상적 배경을 연관성있게 살펴보았다. 삼국은 직선적 형태에 곡선적 요소의 부여, 폐쇄적 구조에 개방성 부여, 자연적 재료에 인위적인 색채 변화, 대칭적 형태에 비대칭적 패턴과 구조의 변화 등 공통적인 표현특성을 지니면서 각기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한국은 면과 선의 조화로운 구성을 지니면서 자연색채와 재료의 질감을 최대한 살렸고, 중국은 면의 강조와 더불어 입체적인 조각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일본은 선적인 요소가 두드러졌고, 색채의 강한 대비와 정교한 형태의 장식을 통해 화려함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표현적 특성은 삼국의 사회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사상과 그에 따른 미학원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과 중국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였던 유가사상의 이념이, 일본은 개성과 소통을 중시한 불가사상의 이념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각기 다른 가구의 표현과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결국, 삼국의 전통가구가 지닌 표현적 차이는 우연의 효과이거나 개인적 선호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별로 전통 미의식을 형성하는데 근원적 배경이 되었던 사상적 이념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가구를 포함한 전통문화의 표현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은 우수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전통문화는 길으로 드러난 조형성만 파악해서는 진정한 의미

와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본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호학 등의 논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표현과 의미의 관계를 연관성있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호학적 분석방법은 사상과 미학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흐름도를 제시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지만, 특정한 대상이 지닌 전체적인 표현특성보다는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형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표현과 의미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한 국가가 지닌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은 주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차이를 파악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전통 디자인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연관성 있게 파악하는 디자인 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 연구에 도입되어 한국 전통문화가 지닌 미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 : 2012. 12. 29]
[1차 심사 : 2013. 01. 21]
[2차 심사 : 2013. 01. 31]
[게재확정 : 2013. 02. 08]

참고문헌

1. 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4
2. 김영무, 東洋의 20가지 가치관, 초판, 도서출판 동행, 서울, 2009
3. 김진옥,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에 따른 특성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 66호, 2006
4. 류티예준, 15~19세기 한중 가구 디자인의 특성 및 비교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9
5. 리빙하이, 동아시아 미학, 신정근 역, 초판, 도서출판 동아시아, 서울, 2010
6. 백봉옥, 중국가구의 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8
7. 송효섭, 문화기호학, 초판, 민음사, 서울, 1997
8. 서승미,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4
9. 신항식, 시각영상 기호학, 초판, 나남출판, 파주, 2005
10. 세계사상사연구회, 간단 명쾌한 동양사상, 이소담 역, 시그마북스, 서울, 2010
11. 우더신, 한 권으로 읽는 불교, 주호찬 역, 초판, 산책자, 서울, 2008
12. 윤재근, 동양의 본래미학, 초판, 나들목, 서울, 2006
13. 이상엽·정희순, 일본문화를 키워온 마음 33가지, 초판, 보고사, 서울, 2006
14. 이순희, 한국과 중국의 전통가구 양식의 비교,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15. 장승구 외, 동양사상의 이해, 초판, 경인문화사, 서울, 2003
16. 장과,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4인 공역, 초판, 푸른숲, 경기, 2010
17. 첸파핑, 한 권으로 읽는 유교, 최성흠 역, 초판, 산책자, 서울, 2008
18. 하재경, 한중일 전통 수납류가구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7권, 2007
19. 홍민정, 일본 에도, 메이지 시대의 목가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1